원장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KCDC 원장 박정근입니다. Coach-Leader 2022년 6월호 표지인물은 KBO 허구연 총재님을 선정하였습니다. 야구인 출신 첫 KBO 총재인 허구연 해설위원을 표지인물로 선정한 이유는 야구 선수, 감독, 야구발전위원장, 해설위원 출신으로 오로지 야구만을 위해 살아온 그의 야구 철학과 리더십을 배우고자 표지인물로 선정했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시면 그의 철학이 무엇이며 야구 관련 성과와 야구계에 끼친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 인터뷰 허락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칼럼으로는 발행인(박정근원장) 칼럼 이외에 김성렬 펜싱칼럼(KCDC 펜싱아카데미 회장, 은호펜싱클럽 관장), 주민재 야구칼럼(J스포츠지회 회장), 김주영 복싱칼럼(KCDC 복싱아카데미 회장, 용인대 교수), 박민열 영어프리토킹 수업 소감(현역장교), 정승환 서포터즈 소감 각 프로젝트(야구.복싱.자격증,총괄 담당, 한국외국어대 학생)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올해부터 새로 설립한 부산센터(회장: 송용관 부경대 교수), 충남센터(회장: 신윤아 단국대 교수), 경남센터(회장: 신원 경남대 교수), 울산센터(회장: 김병직 울산대 교수), 경기센터(회장: 공성배 용인대 교수), 대전센터(회장: 이상기 충남대 교수), 충북센터(회장: 김영식 교원대 교수) 회장님들과 임원진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한 KCDC 야구아카데미(지회 회장: 주민재 J스포츠대표, 김정택 올라운드아카데미 대표), 축구(회장: 강신우), 펜싱(회장: 김성렬 은호펜싱클럽 관장), 복싱(회장: 김주영 용인대 교수), 피트니스(회장: 전은영 글라이트 인터내셔널 회장) 아카데미를 개설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또한 영어프리토킹지회(회장: 유생열 경인교대 교수), 스포츠의학연구회지회(회장: 김경호 경희대 학부생), 야구연구회지회(회장: 추종오 천안시청)를 설립해주셔서 감사하구요.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KCDC 발전을 위한 원장의 부탁 말씀

-전 회원님(회장님+이사님)들께 부탁 말씀 드립니다. 현재 맡고 계시는 역할을 좀 더 내실 있게 하셔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회비만 납부하시고 프로젝트 참여를 전혀 하지 않으시는 이사님들께서도 저와 함께 힘을 모아서 성과물이 나오도록 했음 합니다. 제 혼자서는 좋은 성과물을 만들어내기가 물리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회장님들께 부탁: 프로젝트 참여하지 하지 않는 센터.지부.지회에서는 1가지 프로젝트를 부탁드립니다.
-교수님들께 부탁: 년6회(추후 12회) 논문발간을 위해 지속적인 논문투고 부탁. 미설립센터(인천, 세종, 전남, 전북) 설립 가능 교수님 회장 추천 및 지부.지회 설립 추천
-강사선생님+석박사과정생들께 부탁: 논문투고 및 수업과 연계한 민간자격증 발급 부탁
-지도자님들께 부탁: 종목별 스포츠아카데미 설립 부탁
-학생들께 부탁: 동아리 형태의 지회 설립
-전 회원님들께: 각 프로젝트(ISG+KCDC 홈페이지 또는 아래 서포터즈 모집 내용에 상세히 적혀있음)에 관심을 가져서 1개라도 참여해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열정적으로 참여하시는 대표적인 분들로는 김기진 회장님을 꼽을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편집위원장으로서 코칭능력개발지를 KCI로 유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분 입니다. 양명환 회장님은 매년 해양스포츠코칭지도사 자격연수(이전에는 제주대학교 링크사업단 지원, 지금은 제주도 지원사업)와 제주센터 임원진분들의 꾸준한 논문투고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해양스포츠코칭지도사 자격연수가 국내에서 최고의 특성화 연수기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박창범 회장님은 민간자격증지도자 연수원장으로서 상지대를 기반으로 전국 대학생 및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자격증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성배 회장님은 올해 첫 회장직을 맡으셨지만 서울센터를 제외하고 제일 많은 23분의 임원진(경기센터)을 가입시키시고 2개의 복싱 및 피트니스 아카데미를 개설하셨습니다. 또한 논문투고도 많이 해주시면서 2022년 KCDC 정기학술대회도 용인대에서 개최하는 등 KCDC 발전에 큰 역할을 해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회장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KCDC 발전에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다른 회장님들과 임원진들께서도 좀 더 적극적인 활동 부탁드립니다.

특히 논문투고 많이 해주시는 분들:

-김기진, 안나영, 김종수, 박주식, 윤종대, 홍창배, 문동욱, 최종필, 양명환, 김덕진, 오영택, 신윤아, 류호상, 정지혜, 김성문, 신원, 공성배, 송용관, 추종호, 박윤희, 김병직, 최만식, 황승현, 이효경, 이상기, 김진희, 박정호, 한정규, 박철형, 류민정, 정연택, 곽이섭, 기타 많은 분들께서 논문 투고를 해주셨습니다. 년6회 발간 증편으로 더 많은

투고를 부탁드립니다. 매회 20-30편 게재가 정착이 되면 그대로 년6회 발간으로 가고, 매해 30편 이상이 게재되면 년12회 발간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2022년 한해는 좀 더 조직이 확대화 및 내실화되고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 많은 분들의 열정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6월 30일
원장 박정근 배상